

한경 BUSINES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대명그룹 후계자’ 서준혁 사장 인터뷰
“신성장 동력, 상조와 항공서 찾겠다”

금융 시스템의 고질적인 불안 왜?
임대 수익 높이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
특히 전쟁에 뛰어난 중국 기업들

M&A를 통해 본

글로벌 IT 기업 미래 전략

첫 입주 ‘눈앞’ 세종시 어디까지 왔나

전문가들이 즐겨 찾는 투자 정보 사이트 11선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의 3가지 투자 아이디어
글로벌 시대, 돈 되는 비즈니스 매너 20가지



한국경제신문

값 3,500원





호주 청정에너지 법안

탄소세 시행으로 광산업 큰 타격

한승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 변호사

올해는 한국·호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이 '우정의 해'로 지정한 해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1만 7000여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파병돼 우리나라의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

1961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호주에는 약 12만 명의 한국 교민과 3만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호주 전체 인구가 2000여 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올해 호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정에너지 법안이 통과되면 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호주 리오티노 철광산.

한편 경제 분야에서도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 상대국이고 광물자원 수입 대상국 중 제1위 국가다. 이러한 외교·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자원 부국인 호주와 기술 강국인 한국이 자유무역협

정(FTA)을 체결하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양국 모두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한·호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내에 FTA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 그리고 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올해 호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정에너지 법안(Clean Energy Bill: 2011년 11월 30일까지 의회 통과 목표, 2012년 7월 1일 시행 예정)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이 분야에 투자했거나 향후 투자를 검토하는 우리 기업에 이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의 최대 부존국이지만 원자력발전 시설이 전무하며 총전력의 8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과다 탄소 배출이 늘 문제가 되

는 이유다. 따라서 호주는 2007년 12월 3일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후 2008년 3월 11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법안에 따르면 시행 첫해에는 탄소배출량(CO₂-e)이 2만5000톤을 넘는 시설에 대해 초과 탄소배출량 1톤당 23 호주 달러의 탄소세(Carbon Price)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후 2년간 적정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탄소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정에너지 법안 시행 이후 3년간의 고정 세율에 따른 탄소세 부과 기간이 지나고 나면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장 가격으로 탄소세가 결정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자동 전환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세 상한가는 2014년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이듬해의 탄소세 상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세 부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광산업이다. 호주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광산 업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250억 호주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금은 추가 비용 대비 10%밖에 되지 않아 광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촉진 정책,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호주에 이미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장애 요인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정에너지 법안이 호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신규 투자할 때는 변화하는 호주 산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